

## 6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
- 편집자 주 -

### ■ ■ ■ **건정심, 자연분만수가 50% 인상하기로 결정**

- '10. 6. 1(화) 14:00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차관)는 자연분만 수가를 50% 인상하기로 결정했다.
-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'총 50%를 가산하되 금년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,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다.
-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'01년 초저출산 사회(합계출산율 1.3이하)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과,
  -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·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,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분만수가의 인상을 결정하였다.
- 한편, 보건복지부는 관내분만을,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, 산전진찰,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-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'병리조직검사'의 비용은 오는 7월부터 평균 15%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되었다.
- 한편, 정맥영양요법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장 증후군(Short Bowel Syndrome) 환자에게 소장을 이식하는 것(소장이식술)과 이식을 위한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(소장적출술)하는 것을 급여화하기로 결정되었다.

- 분만수가 가산 등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, 암 진단비용의 감소, 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## ■ ■ ■ “난민 등”에게 의료혜택 제공

-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와 법무부(장관 이귀남)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.
  -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,000명이며,
  -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하여 입원수술비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.
- 이번 조치는 난민 등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,
  -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편,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등 12,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주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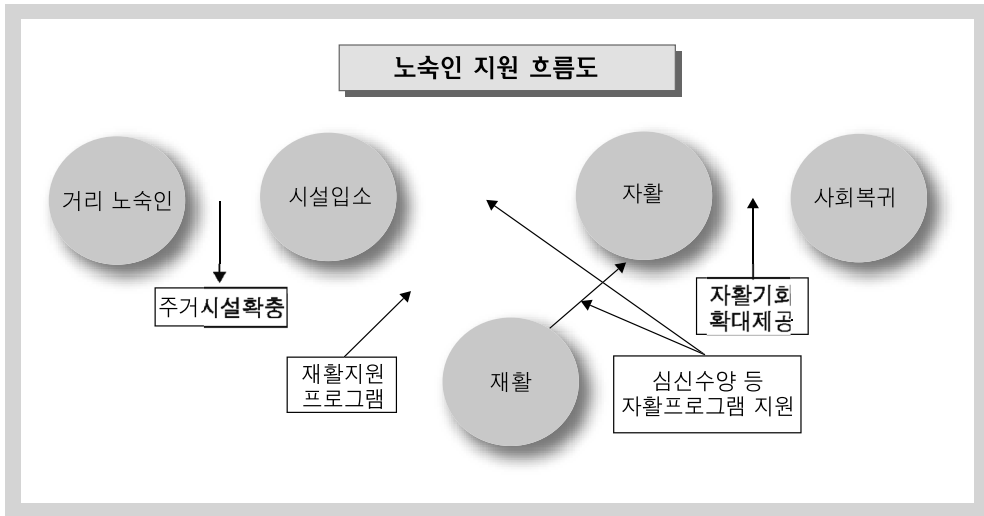
## ■ ■ ■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 마련

-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관계부처(국토해양부·행정안전부·경찰청·서울시 등) 합동으로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을 마련하여 활기찬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적·체계적인 대책들을 수립·추진하기로 함.

### 〈노숙인 자활 대책〉

- 노숙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
  - ①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 조사
  - ② 부랑인·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
- 노숙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
  - ① 거리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 제공(630명 → 830명)

- ② 매입임대주택(공동생활가정) 지원 사업 대상에 노숙인 포함
- ③ 신규 여성노숙인 쉼터 1개소 개설
- 노숙인의 거리생활 청산을 위한 지원 수단 제공
  - ① 쉼터 등 관리자가 있는 등록시설에서 숙식하는 노숙인 대상으로 주민등록 회복 추진
  - ②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
  - ③ 노숙인 고용 사회적기업 추가 설립



## ■ '0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크게 늘어

-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'0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집계 결과 12월 현재 363만 명이 넘는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.
-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노인은 '08년 12월 290만 명에서 '09년 12월 363만 명으로 1년 동안 73만 명이 증가하였다.
- 보건복지부가 '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전체노인 70%수준까지 확대함에 따라 '09년 5월 이래 지속적으로 전체노인의 69% 이상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
- 또한 '09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3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편, 시·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보면, 전남이 86.1%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경북

(80.9%), 전북(80%) 순이었으며, 서울시가 53.2%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가 59.7%로 그 뒤를 이었다.

○ 시·군·구별 수급률은 전남 완도군이 94.7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서초구는 28.5%로 가장 낮은 수급률을 보였다.

○ 특히 농어촌 81개 지역 중 60개 지역이 수급률 80%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.

□ 성별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전체 노인 중 남성이 34.7%, 여성은 65.3%로 여성이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연령별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중 70대가 178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9%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.

○ 연령대별 노인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90대로 90대 노인의 90.9%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.

□ 가구유형별로 보면, 노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53.4%로 노인부부가구 수급자 46.6%보다 비중이 높았다.

□ 한편, 보건복지부는 '09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363만 명을 '10년도에는 12만 명 확대하여 375만 명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## ■ 보건복지부,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오픈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올 7월 시행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([www.e-welfare.go.kr/pension](http://www.e-welfare.go.kr/pension))를 구축하여 5월 2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
□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는 1단계 서비스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.

○ 향후 2단계 서비스로서

- “내 연금 알아보기” 코너를 구축하여, 장애등급과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며,

- “온라인 상담기능”을 구축하여,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.

- 이외 부가적으로 장애인관련 정책 및 최신뉴스, 게시판 기능을 추가하여 정책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.

□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.

○ 장애수당과는 달리 「장애인연금법」에 의해 보장되며,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

된 연금을 받게 된다.

□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

- 장애인연금 홈페이지([www.e-welfare.go.kr/pension](http://www.e-welfare.go.kr/pension))를 참고하거나,
-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 없이 129)에 문의하면 된다.

## ■ ■ ■ ‘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항’ 지금 전화하세요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보육료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「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」를 6월 15일(화) 개설한다.

□ 부실한 급식 제공이나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사항 뿐 아니라,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.

### 〈신고 가능한 사항〉

- ① 보육시설의 급·간식 운영, 안전관리 및 건강·위생관리에 관한 사항
- ② 아동·교사 허위 등록,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경우
- ③ 시설 신축·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 집행하는 경우
- ④ 기타 부당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

○ 전용전화(☎1566-0233, 아이사랑 헬프데스크)나 아이사랑보육포털([www.childcare.go.kr](http://www.childcare.go.kr))

“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”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면,

- 확인절차 이후,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.
- 다만,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.

### 〈자체 종결처리 사항〉

-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, 보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
-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,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
- 이미 동일 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경우
- 신문, 방송 등 언론에 이미 보도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

- 또한 신고에 따르는 신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, 인적사항 등은 철저히 보호되며,
  -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은 아이사랑보육포털이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.
-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“『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』를 개설하여,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투명한 정부 보조금 집행을 유도할 것”이라면서, “부모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**■ 노인 13.8%, 학대받은 적 있다 - 「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**

-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「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(6. 15.)」을 맞아하여 「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」 결과를 발표하고, ‘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’을 마련하였다.
- 이 조사는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노인학대 실태조사이며,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〈전국노인학대 실태조사 개요〉

- 조사기간 : '09. 4. ~ '10. 4.
- 조사대상 : 전국 노인(6,745명), 일반 국민(2,000명) 및 전문가(177명)
- 조사내용 및 방법
  - (노인) 학대받은 경험에 대한 면접조사
  - (일반 국민)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· 원인 · 심각성 전화 조사
  - (전문가) 한국형 노인학대 선별지표 개발 · 검증, 노인학대의 심각성 및 정책방안에 대한 인식 파악
- 조사주관기관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**■ 한-두바이간 보건의료협력분야 논의**

-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6일(수) 14:30~15:00에 UAE 두바이 보건성 장관 알 무르쉬드(Qadhi Saeed Al Murooshid)와 양국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.
- 두바이 보건성장관은 두바이에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진출(삼성두바이클리닉 오픈, '10.4.7.)하는 등 양국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

-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두바이 환자를 한국 의료기관으로 송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5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 하였다.

□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해 말 UAE 원전 수주와 최근 제2차 경제공동위 개최('10.5.12.) 등으로 강화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한층 돈독해 지기를 희망하며,

○ 특히, 양국 간에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-두바이 보건 당국 간 MOU 체결을 제안하였고,

○ 두바이에 진출하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과 한국을 환자 전지치료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

-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두바이 보건성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이날 오전 두바이 보건성장관은 삼성의료원을 방문하여 삼성의료원의 두바이클리닉 개원에 따른 후속 협의를 논의하고 삼성의료원과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 하였다.

- 이는 향후 중동지역으로의 의료기관 진출과 이를 거점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.

## ■ ■ ■ 장애등록제도 국민적 신뢰 회복 시급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심사\* 결과 장애등급이 36.7% 가량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\* 장애등급 심사: 일선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 등급에 대해 전문심사기관(국민연금공단)에서 다시 한 번 판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

○ 연도별로 보면 등급하향비율은 39.2%('07)→41.8%('08)→39.6%('09)→36%(~'10.3.)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.

○ 장애 등급이 하향 조정된 현황을 살펴보면, 1급에서 2급으로의 하향률은 25.6%, 3급 이하(경증)로의 하향률은 14%였고, 등급 외로 판정 받은 경우(5%)도 있었다. 또한 2급에서 3급 이하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은 40%였다.

○ 이렇게 등급이 하락되는 원인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74.3%, 당초 장애판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판정된 경우가 14.0%로 나타났다.

○ 금년 1월부터 복지부는 신규로 등록하는 1~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으며,

금년 7월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실시하고, 내년부터는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1~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
- 또한 향후 일선에서 의료기관과 장애등록 신청인들과의 갈등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최종 등급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.

## ■ 「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」 한국어판 발간

- 보건복지부(장관 전재희)는 『OECD Health at a Glance 2009』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『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』를 발간하였다.
- 「OECD Health at a Glance 2009」는 OECD에서 작년 12월에 발간한 것으로 OECD가 2001년부터 격년으로 회원국의 보건 핵심지표와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발간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.
- 「Health at a Glance」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국제적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정책담당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.
  - 이번에는 이용의 편의를 한층 향상시키고자 한글판이 발간되었다.
- 한글판의 모든 내용은 OECD가 작년 12월에 발간한 원본 그대로이고 총 7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우리나라의 주요지표 중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2007년 1인당 국민의료비가 1,688 US\$로 OECD 평균 2,984 US\$ 보다 낮으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1인당 실질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8.7%로 OECD 평균 4.1%보다 크게 높아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.
  - 2007년 기대여명이 79.4세로 OECD 평균 79.1세보다 높고, 2006년 유방암 사망률은 십만명당 5.8명으로 OECD 평균 20.7명보다 크게 낮다.
  - 2006년 뇌졸중 사망률은 남성이 십만명당 97명, 여성이 64명으로 OECD 평균이 남성 60명, 여성 48명인데 비하여 높은 편이다.
  - 2006년 전체 암 사망률은 여성이 십만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 126명보다 낮는데 비해 남성은 242명으로 OECD 평균 212명보다 높은 편이다.
- 이 책자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w.go.kr>) 「정보마당 → 간행물발간자료」와 보건복지부 정책통계포털(<http://stat.mw.go.kr>) 「자료마당」 코너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.



##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 총수익률 10.39%, 수익금 26조 2,462억원

□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(수) 2010년도 제4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(위원장: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)를 개최하여 '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(안)' 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○ '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(안)' 에 따르면

- 기금규모는 2009년말 현재 시가기준 277조 6,424억원(전년대비 17.9% 증가)으로, 금융부문에 277조 2,519억원(99.9%), 복지부문에 1,540억원(0.1%) 투자하고 있다.
- 기금의 총수익률은 10.39%으로, 2009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은 26조 2,462억원이며, 1988년 이래 누적수익금은 109조 9,894억원이다.

〈2009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요약표〉

(단위 : 천억원, %)

구분		투자규모		수익률		
		금액	비중	수익금	수익률	
총계		2,776	100	262	10.39	
금융	채권	국내	2,045	73.7	77	4.13
		해외	105	3.7	3	3.25
	주식	국내	363	13.1	155	58.45
		해외	134	4.9	24	24.88
	대체투자	125	4.5	-0.8	-0.92	
복지	1	0.1	0.009	0.53		

○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은 10.84%이고,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,

-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세 속에서 국내주식수익률(58.45%)은 벤치마크(52.04%)를 6.41%pt. 초과하였고, 해외주식수익률(24.88%)도 벤치마크(23.62%)를 1.26%pt. 초과하였다.
- 국내채권수익률(4.13%)은 벤치마크(4.21%)를  $\Delta 0.08\%$ pt., 해외채권수익률(3.25%)도 벤치마크(4.02%)를  $\Delta 0.77\%$ pt. 각각 하회하였다.
  - BM 대비 채권수익률이 하회한 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와 함께 채권금리의 상승 기조에 따라 보유 채권의 가치 하락에 기인

○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'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' 에서는

- 현행 장기 목표수익률 개념의 대체투자 벤치마크를 시장수익률개념이 반영되도록 조속히 개선해 실질적인 평가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유인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였고,
- 부동산은 그 특성의 이질성을 감안해 대체투자에서 분리해 독립된 자산군으로 평가할

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으며,

- 국민연금의 운용전략과 평가가 1년 단위로 평가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 목표가 희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,
  - 장기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운용전략을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가체계 및 보상방법을 전향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.

□ 아울러,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외부 위탁운용사 중 운용실적이 탁월하여 기금수익 증대에 기여한 운용사를 선정, 표창함으로써 전체 위탁사의 성과개선을 유인하고자 하였다.

- 국내주식부분: 트러스트자산운용, 템플턴투신운용, 알리안츠자산운용
- 국내채권부분: 미래에셋자산운용
- 대체투자부분: STIC인베스트먼트

□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201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중기(2011~15년) 자산배분(안)도 심의·의결하였다.

○ 중기(2011~15년) 자산배분(안)은 지난해 수립한 중기(2010~14년) 자산배분(안)을 토대로 대내외 경제전망, 자산별 수익률 및 위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마련되었으며,

- 장기 전략의 일관성 유지와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제거를 위해 당초 마련된 중기(2010~14년) 자산배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.

○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, 2015년 목표수익률은 6.7%로 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포트폴리오는 주식 30% 이상, 채권 60% 미만, 대체투자 10% 이상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시장의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목표포트폴리오는 2014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,
-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투자다변화(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)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.

○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2015년 목표포트폴리오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기금운용의 수익성 저하 및 자본시장 왜곡의 가능성이 있어 세부내용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.